

# 민형배·권향엽 '우세'... 민주당 후보들 큰 차이로 앞서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65.4%·새미래 이낙연 15.5%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62.5%·국힘 이정현 23.8%  
조국혁신당 비례투표, 광산을 42.1%·순천을 43.9% '1위'

## 총선 D-9 광주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

4·10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광산' 선거구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큰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런기사 3편〉  
'판록'의 정치계 거물급 후보들도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거센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이 두 곳의 선거구는 전직 당 대표 등을 지낸 '거물' 정치인들이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며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5선 국회의원과 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출마했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는 3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4선 도전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선거일 열흘 가량 앞두고 '조국 돌풍'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광산을 선거구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후보 가상대결 등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65.4%로, 15.5%에 그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더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가 7.9%, 진보당 전

주연 후보 3.8%,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1.3% 순이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3.0%였고,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3.1%였다.

비례정당 투표를 묻는 질문에는 조국혁신당이 42.1%의 지지율로 우위를 보이면서 광주에서의 '조국 돌풍'을 반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연합 30.6%, 새로운미래 7.6%, 국민의미래 6.7%, 개혁신당 5.9%, 녹색정의당 1.4%였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 비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11.5%포인트 앞선 셈이다.

같은 기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후보 가상대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62.5%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23.8%)를 크게 앞섰다. 이어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7.4%를 얻는데 그쳤다. 지지후보 없다는 응답은 2.8%,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3.5%였다.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연합(30.3%), 국민의미래(9.1%), 새로운미래(4.0%), 개혁신당(2.7%), 녹색정의당(1.1%)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이라는 응답은 2.8%였고,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각 2.7%, 3.4%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조사(무선 90%·유선 10%)로 진행됐다. 광산을 선거구 응답율은 6.6%였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의 응답율은 8.4%였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립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선거운동은 신나게 지난 3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사거리에서 민주당 광산지역 출마 후보들의 합동유세가 진행되고 있다. 각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원들이 울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총선 유권자, 광주 119만9656명·전남 156만4293명

전국 4428만11명  
50대 전체의 19.7% '최다'

4·10 총선의 국내의 유권자 수가 광주지역 119만9656명, 전남지역 156만4293명으로 확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4428만11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국내 선거인명부 4425만1919명, 재외 선거인명부 2만8092명을 합쳐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유권자는 4년 전 21대 총선 때의 4399만4247명보다 0.6% (28만5764명) 증가했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때인 4430만3449명보다 2만3438명 줄어든 수치다.

총선 D-9 한신협 전국판세 분석 ▶ 4·5면  
남도유람 맛과 멋 - 광양의 볼거리 ▶ 22면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19.7% (871만여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7.8% (785만여명), 60대 17.4% (769만여명), 30대 14.8% (655만여명), 70세 이상 14.5% (641만여명), 20대 13.8% (611만여명), 18~19세 2.0% (89만여명) 등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50.5% (2233만여명), 남자가 49.5% (2191만여명)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59만여명 (26.2%)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30만여명 (0.7%)으로 가장 적었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19일 기준 구·시·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됐다. 3월20일 이후 전입신고 한 사람은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섬유 한국' 신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 2면

이번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개)다. 기초단체장 선거인 수는 28만 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 수는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 수는 112만3151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 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5~6일 사전투표소, 또는 10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의협 "개원의도 주40시간 '준법진료' 나설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진료'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부 인적 구성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차기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임원택 당선인 등이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새롭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성근 교수는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부 고

조석래 (趙錫來) 효성그룹 명예회장께서  
2024년 3월 29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장례는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기리기 위해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화 및 부의는 정중히 사양하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빈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
- 장지 : 경기도 선영

- 발인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7시
- 연락처 : 02-2227-7550

효성그룹